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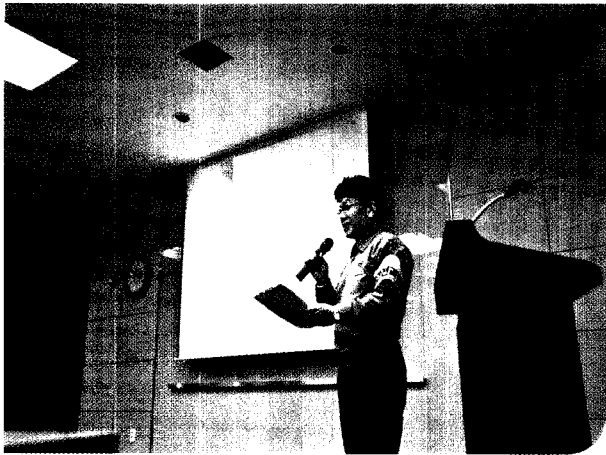
슬픔은 나누고 희망은 더하세요. 안전으로 하나가 된 이들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

중소규모업체에서의 안전관리자는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기란 쉽지 않으며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다.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는 이러한 안전관리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안전과 관련된 정보 공유와 간담회, 세미나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지역 안전은 물론 회원 간 끈끈한 유대감도 이어가고 있다.

취재 | 임재근 기자





당진지역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협의회 결성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는 2005년 3월 대한산업안전협회 당진출장소 관할 대행사업장 및 회원사의 안전관리자들이 모여 안전활동과 관련된 정보교류, 안전의식의 고취, 유대관계의 강화 등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격월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매년 12월 총회를 개최, 정기회의 시에는 회원들이 순번을 정

하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나 아차사고사례 발표에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예방대책을 서로 논의하고 있다.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가 전부 다른 만큼 다양한 안전대책을 제시되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도 강구되기도 한다. 또한 노동부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밀접한 협조를 통해 당진지역 산업재해를 감소를 위한 세미나 및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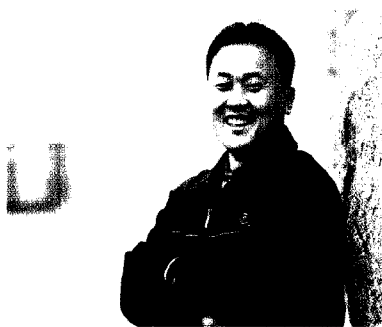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 개최

취미로 동호회 활동을 하는 경우 그 당사자 간의 유대관계는 같은 것을 즐기는 입장에서 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개인의 가족들과도 어울리기는 어려운 것이 대다수의 동호회 활동이다. 직장 내에서의 동호회 역시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가족과 함께 하는 행사는 드물다. 하물며 직장도 다르고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닌 사람들이 안전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가족을 걱정하고 집안 대·소사를 챙겨주는 경우가 있을리 만무해 보이지만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 회원들은 서로의 가족의 안부를 묻는 것이 평범한 인사이다. 한 회원은 모임 활동을 통해 가정의 평화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담 반 농담 반으로 이야기를 한다.



▶ 권양근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 총무팀장 [현대EP(주)]

대부분의 중소기업 안전관리자들의 상황이 그렇듯 안전과 보건에 대한 업무만 전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 생산이나 다른 업무가 우선이 된다면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안전의식을 드높일 때 우리 사업장에서의 안전의식도 함께 올라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김득환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 [대한산업안전협회 충남북부지회]

당진지역 기업들의 안전관리자가 모인 만큼 우리의 바램은 작으나마 당진지역의 산업재해율이 낮아지도록 협의회가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서로 회사의 규모나 경영방침에 따라 차이가 나는 안전관리 수준을 함께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우수한 안전관리 기법을 벤치마킹함으로써 당진지역의 안전관리 수준을 상향평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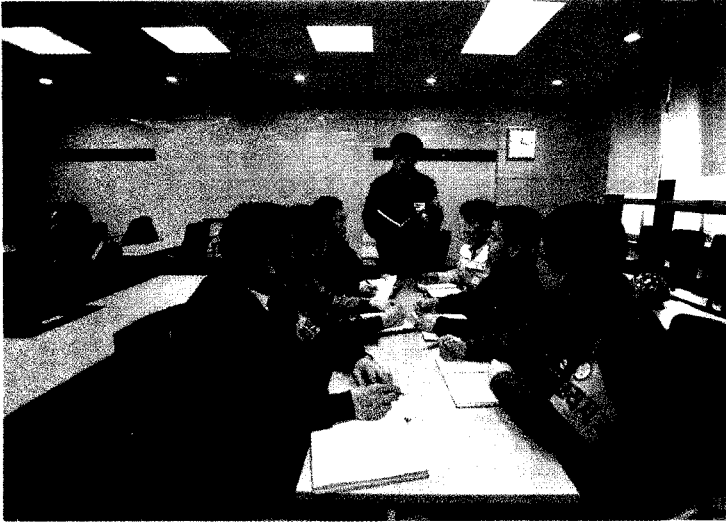


▶ 권신호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 기획팀장 [(주)금화PSC]

현재 당진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에서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안전인들의 모임이기는 하지만 건설, 플랜트, 전기, 화학 등 업종이 다양합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그 위험에 대한 재해사례, 예방대책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협의회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형님, 아우님 가족 같은 분위기

4년 째 모임을 이끌고 있는 노희재 회장은 비록 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안전보건이라는 동일 직종에 종사한다는 것만으로 일체감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금까지 뜨거운 참여로 당진지역 대표 안전보건 협의체로 성장하게 된 것이 큰 보람이라 말한다. 회원들의 대부분은 안전보건관리만을 전담하여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때로는 인사, 노무, 환경, 품질 등 일인다역을 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지만 안전에 대한 열의만큼은 그 누구 못지않다. 혼자 하는 안전



이 아니라 함께 하는 안전이기에 다른 역할에서도 더 매진할 수 있었다. 정기회의에 이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스스럼없이 형님, 아우님하며 가볍게 술잔을 기울이며 돈독한 정을 나누기도 한다.

안전, 행복한 동행

안전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아무리 철저한 예방 대책이나 안전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공정이라 해서 '100% 안전하다'

라고 할 수 없다. 안전은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자의 심적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지만 협의회를 통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더 나은 해결을 위해 자신의 일인 양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가족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이 커다란 힘이 되고 있다. 수시로 전화나 메신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보교환은 물론 안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어려움 등을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비록 회사는 다르지만 든든한 후원자가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어둡고 험한 산길을 혼자가 아닌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가 그 한명 한명에게 주는 든든함일 것이다.

더욱 바빠질 2009년 한해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는 2009년을 새로운 도약의 해로 삼아 더 많은 당진지역 안전관리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당진지역을 필두로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기법을 벤치마킹할 기회를 계획 중에 있다. 함께 나눌수록 커지는 안전, 그 실천을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가 꾸준히 해 나갈으로써 목표했던 소속 기업의 무재해 달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



노희재 당진지역 안전보건관리협의회 회장
[한국동서발전(주) 당진화력본부]

한 알의 밀알이 새 봄에 싹을 틔트려 수확의 계절 가을에 수많은 밀알이 되어 풍요로움을 꽃필 수 있듯이 우리 단체 회원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소속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면 당진지역에서는 산업재해가 영원히 추방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